

2021 수능 예열 문제_심프.ver

1. 수능 당일.

1. 7시 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한다.
2. 편한 마음으로 예열 문제를 푼다.
3. 혹여나 틀리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예열 지문일 뿐이다.
4. 아는 걸 틀리지만 말자!

2. 자료 사용법

1~3등급 : 시간 제한은 두지 않되, 평소 풀던 속도대로 문제를 푼다.

4등급 이하 : 화작문만 우선적으로 풀고, 시간이 남는다면 나머지 지문들을 풀어보자!

3. 전하고 싶은 말

드디어 수능 당일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몇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노력하던 그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긴장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힘들겠지요. 다만 너무 힘주고 뻣뻣하게 있지는 맙시다. 괜한 긴장으로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그건 안 되니까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9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오늘, 1년 동안 쌓아온 여러분의 노력과 실력이 점수로 드러날 겁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의 나를 믿고!

잘 할 테니까, 잘 하고 와요.

4.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팁

1. 내가 연습해온 행동 양식대로!

문제를 풀다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세요. 특히, 화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2. 정답은 2분 내로 고른다.

어차피 그 때 안 보이면 백날 끌고 가봐야 제대로 정답을 고르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고민된다면 일단 '정답처럼 보이는 것'을 찍어놓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남을 때 돌아와서 봐도 됩니다.

3. 비문학에서 답이 안 보인다면?

실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눈알 굴리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땐, 핵심 키워드의 '정의'와 '비교지점', '예외'에 주목해서 읽으세요.

4. 문학에서 답이 안 보인다면?

가장 먼저 <보기>로 돌아가세요. <보기>가 없거나 <보기>를 봐도 답이 안 보인다면, 지문 텍스트 그 자체로 돌아가세요. 절대, 처음 판단할 수 없었던 문제를 지문이나 <보기>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고르지는 마세요. <보기>와 지문을 다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보인다면 그때 '정답같아 보이는 것'을 찍어놓고 넘어갑시다.

5. 주변 사람에 신경 쓰지 않기.

주변 사람이 첫 페이지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는 상관 없습니다. 나는 내 페이스대로 풀면 그걸로 충분해요. 빨리 푼다고 가산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60분 만에 다 풀고 80점 받는 것 보다 80분 알차게 쓰고 100점 받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페이스 조절 잘 합시다.

그럼 화이팅입니다!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2021. 09 [1~3]

뽕은맛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뽕은맛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단맛, 짠맛, 신맛 등과 같은 기본적인 맛이 혀의 미각 세포를 통해 느껴진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뽕은맛은 입속 점막과 같은 피부 조직이 자극을 받아 느껴지는 촉각에 해당해요. 뽕은 맛을 내는 성분은 입안에서 혀 점막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혀의 점막을 자극하죠. 이 자극 때문에 우리는 입안이 텅텅하다고 느낍니다. 그 텅텅한 느낌을 뽕은맛이라고 하는 거죠.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것은 감의 단면입니다. 과육 사이에 보이는 작고 검은 점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대답을 듣고) 네, 다들 본 적이 있는 이 점들이 뽕은맛을 내는 성분 중의 하나인 타닌입니다. 덜 익은 감의 타닌은 침에 녹는 성질이 있어 뽕은맛을 느끼게 해요. 하지만 감이 익어 가면서 타닌이 침에 녹지 않는 성질로 변하기 때문에 잘 익은 감에서는 뽕은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뽕은맛을 내는 타닌이 들어 있는 감과 녹차는 당뇨와 고혈압 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입이 마르고, 대장에서 수분 흡수율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뽕은맛을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뽕은맛은 다른 맛과 혼합돼 독특한 풍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풍미 때문에 녹차나 홍차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데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뽕은맛이 나는 식품에는 무엇이 더 있는지 여러분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에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후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를 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와 발표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메모	발표 계획
① 청중은 뽕은맛의 느낌은 알지만 뽕은맛과 관련된 지식은 부족할 것임.	뽕은맛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임을 밝혀야지.
② 청중은 기본적인 맛은 미각 세포를 통해 느낀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음.	기본적인 맛과 뽕은맛이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를 언급하며 뽕은맛이 느껴지는 과정을 설명해야지.
③ 감의 타닌(과육의 검은 점)이 뽕은맛을 낸.	뽕은맛을 내는 다양한 성분을 분석한 시각 자료를 보여 줘야지.
④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줌.	뽕은맛이 나는 식품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야지.
⑤ 뽕은맛이 나는 식품은 여러 가지가 있음.	뽕은맛이 포함되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식품의 예를 언급해야지.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1 : 녹차에 타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녹차의 뽕은맛이 물에 우려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봐서 녹차의 타닌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군.

학생 2 : 뽕은맛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쉽게 접하는 과일인 감과 연결해서 설명하니 뽕은맛에 관심이 생겼어. 뽕은맛이 나는 건 먹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몸에 좋다니 앞으로 적당히 먹어 봐야겠어.

학생 3 : 감의 검은 점이 단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뽕은맛을 내는 성분이었구나. 감이 익어 가면서 그 성분의 성질이 변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비교하며 발표에서 제시한 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청중에게 익숙한 사물을 소재로 제시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4.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2021. 09 [11]

<보 기>

선생님 :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령, 어간 ‘오-’와 어미 ‘-아’가 결합해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o’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의 반모음은 ‘j’도 있으니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도 있겠죠? 그럼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 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 : 네, 로 발음되는 예를 들 수 있어요.

- ① 어간 ‘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뛰어]
- ②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해 [차도]
- ③ 어간 ‘잡그-’와 어미 ‘-아’가 결합해 [잡가]
- ④ 어간 ‘견디-’와 어미 ‘-어서’가 결합해 [견더서]
- ⑤ 어간 ‘키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키워라]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8. 11 [16~19]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5.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6.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7.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 ③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⑤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8. 09 [20~22]

(가)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나)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미욱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려 나가다.

한밤에 ㉡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긔 차고 넘치노나.

쫄그리고 앓은 한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연연턴 녹음, 수묵색으로 짙은데
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키도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건디게 향그럽다.

- 정지용, 「달」 -

* 궁거워 : 궁금하여.

9.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1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 준다.
- ②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을, ㉡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한다.
- ③ ㉠은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은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표현한다.
- ④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은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못 건너게 향스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빠른 정답

[1~3] 2021. 09 [1~3]			
1	2	3	
④	③	⑤	

[4] 2021. 09 [11]	
4	
④	

[5~8] 2018. 11 [16~19]				
5	6	7	8	
⑤	③	②	③	

[9~11] 2018. 09 [20~22]			
7	8	9	
①	④	③	